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이탈리아 문화유산 분야 논의

전 인 석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 주임연구원

본고는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 맞이하게 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이탈리아 문화유산 분야의 논의사항을 검토하고 주요 논의점과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탈리아 문화유산 분야의 포스트 코로나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문화유산 분야의 주요 쟁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따른 이탈리아 문화유산 분야 피해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대규모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며 이탈리아의 문화유산 분야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이탈리아 주립 박물관(갤러리 포함), 기념물 및 고고학 유적지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7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쇄된 박물관 중 약 21.3%는 2021년 재개장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openpolis,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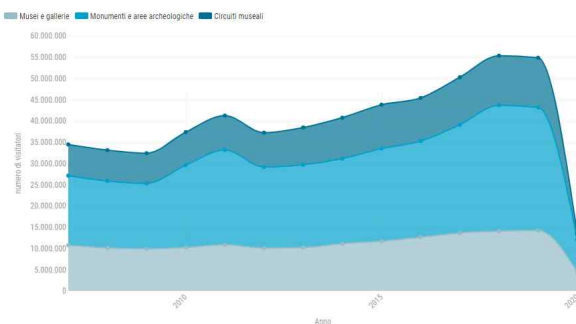


그림 1. 2007~2020년 이탈리아 박물관, 기념물, 고고학 유적지 방문객 추이
(출처 : openpolis processing 홈페이지,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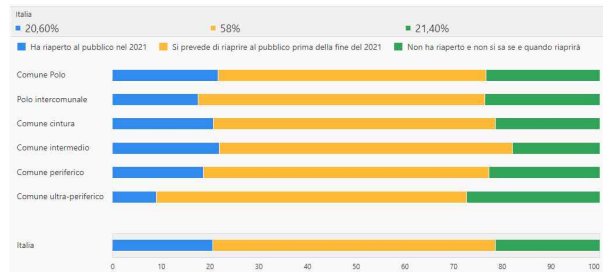


그림 2. 2021년 기준 이탈리아 박물관 재개장 여부 비율
(출처 : openpolis processing 홈페이지, 2022)

방문객의 감소와 폐쇄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탈리아의 박물관 및 유사 문화 기관의 약 79%는 2019년 대비 연간 수입이 약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코로나 팬데믹은 이탈리아 문화유산 분야에 대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Intesa Sanpaolo, 2021).

다만 코로나 팬데믹이 이탈리아 국민의 문화적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20년 11월, 이탈리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의 문화 소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중 문화 행사나 활동에 대한 즐거움 결여'에 대해 86%의 응답자가 '결여됨'을 호소하였다(Intesa Sanpaolo, 2021). 이에 따라 이탈리아 문화유산 분야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포스트 코로나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

인 논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포스트 코로나 전환에 따른 이탈리아 문화유산 분야 논의와 한계점

이탈리아 문화유산 분야는 포스트 코로나로의 전환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 (Centro Universitario Europeo per I Bene Culturali, 2020).

• 문화유산을 통한 사회적 회복

포스트 코로나로의 전환에 따라, 이탈리아는 문화유산이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Graziani(2020)는 전례 없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탈리아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는 점(특히 젊은 세대가 받을 영향에 대해서 알 수 없음에 주의가 필요한 점)에 대하여 이탈리아가 보유한 문화유산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유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동체의 역사, 전통, 가치 등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도 지역 사회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로 존재할 것이다(Roudil, 2020).

• 디지털로의 전환

이탈리아의 문화유산 분야 역시 코로나 팬데믹 동안 디지털 전환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참여 방법으로 주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은 문화유산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접근 방식이었다. QR코드나 터치스크린, 박물관 앱은 사용자에게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했으며, 증강현실 등의 새로운 기술은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제공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디지털 방식으로 문화생활을 경험한 참여자의 약 31%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디지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한 만큼,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 방식 적용 역시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non si rinuncerà al digitale anche quando riprenderà la fruizione dal vivo



그림 3. 팬데믹 이후 문화 분야 디지털 접근 방식 사용 여부 (출처 : Intensa Sanpaolo, 2021)

• 지역 문화유산 발굴과 관광

이탈리아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포스트 코로나를 기점으로 새로운 문화유산 발굴 필요성과 그에 연계한 관광 개발에 대한 논의도 등장한다. Ferrigni(2020)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베네치아와 같은 일부 문화경관과 예술도시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관광 상황이 일시적으로 해소된 점을 지적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새로운 형태의 문화유산 관광 계획과 연계할 것을 제안한다. Ferrigni는 최근 이탈리아 문화유산 관광 명소들이 관광객의 수요에 맞춰 운영되다 보니 지역 공동체 문화는 소외하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는 지역 공동체와 관광객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유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가 도래하더라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가용 자원이 부족할 수 있고, 부족한 가용 자원에 따른 문화 정책의 자원 투입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차원의 매력적인 문화유산을 새로 발굴하고 지역개발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지속 가능한 문화 관광이 계획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한편 이러한 논의들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탈리아 문화유산 분야에서 한계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 디지털 전환의 한계성

문화유산에 대한 디지털 전환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동시에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는 경험을 대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문화유산에 대한 디지털 전환이 기술 발전을 토대로 이전에 없던 경험을 제공하는 점은 사실이지만 문화유산에 대한 간접적 체험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을 통한 문화유산 간접 체험과 직접 체험의 간극을 어떻게 최소화 할 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포스트 코로나 전환에 따른 경기 회복 우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발생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경기 회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관광 개발, 산업 지원으로 인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2년 동안 침체된 경기 회복이 정책적으로 우선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호할 지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져야 하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 포스트 코로나 전환에 따른 이탈리아 문화유산 분야 논의의 시사점

포스트 코로나 전환에 따른 이탈리아 문화유산 분야 논의에 대하여 보고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 전환은 앞으로 더욱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간접적 체험 방식인 디지털 체험과 실제 문화유산 체험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술 발전, 스토리텔링 기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포스트 코로나로의 전환에 따른 경제 회복과 문화유산 보호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같은 갈등 상황에서 문화

유산 보호를 위해서는 문화유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탈리아 전국 고고학자 협회 및 전국문화유산 기술자 협회, 이탈리아 고고학자 연맹 등의 단체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 고고학 관련 저작물 부가가치세 10% 감면, 문화유산의 접근성 및 활용 확대의 강화를 위한 재건 기금 및 후원, 디지털 데이터의 표준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Archeoimprese, 2021).

참고자료

Archeoimprese(2021). 「UN PIANO DI RIFORMA E DI INVESTIMENTI PER L'ARCHEOLOGIA: UN CONTRIBUTO PER IL RILANCIO DI UNA POLITICA INDUSTRIALE PER IL SETTORE DEI BENI CULTURALI」.

CD-ETA(2021). 「Digitization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in Conditions of COVID-19 Pandemic Interregional Webinar State-of-Art(Italy)」.

Centro Universitario Europeo(2020). 「Centro Universitario Europeo per I Beni Culturali: Territori della Cultura, Cultura dei Territori al tempo del coronavirus」.

INTESA SANPAOLO(2021). 「I consumi culturali degli italiani ai tempi di Covid-19: vecchie e nuove abitudini」.

lentepubblica.it(2021). 「Innovazione digitale e Beni Culturali: le strategie post-Covid」. (<https://www.lentepubblica.it/pa-digitale/innovazione-digitale-beni-culturali->

strategie-post-covid/)

openpolis(2022). 「L'accesso alla cultura e ai musei per I minori, dopo due anni di pandemia」.

(<https://www.openpolis.it/laccesso-alla-cultura-e-ai-musei-per-i-minori-dopo-due-anni-di-pandemia/>)



본 저작물을 인용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석(2022).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이탈리아 문화유산 분야 논의”.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아키스브리핑 제294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인석 jisindol@kchpi.or.kr
ACKIS브리핑 작성 2022.09.20.

#이탈리아 #문화유산 #포스트코로나 #문화정책 #문화재
#쟁점 #회복 #디지털